광주·전남 산단 생산·고용 실태 분석

하남 생산증가 못따르는 고용 대불 매출·근로자수 동반상승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10년동안 거침없는 성장을 이뤘다. 입주업체 수 3.5배(338개사→1173개사), 생산액 2.6배(2조1619억원→5조6642억원) 등 몸집이 3배가량 커졌다. 하지만 이같은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결국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새 매출 3조원 신장고용은 1593명 늘어=여수산단의 입주업체 수와 생산실적은 최근 10년 사이에 각각 210%, 183% 신장됐다. 하지만 근로자 수는 12.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0년말 86개 업체가 입주해 1조8359억원의 생산실적을 냈던 여수산단은 2003년 2조3277억원, 2005년 3조3411억원, 2007년 4조8747억원, 2009년 5조2068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고용인원은 2000년 1만2404명에서 2005년 1만2156명으로 248명 줄었다가 2007년 1만2540명, 2008년 1만3622명, 2009년 1만3997명으로 증가했지만, 생산실적에 비해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광양산단도 입주업체 수와 생산실적은 꾸준히 늘었다. 광양산단은 2000년 853억원에서 2003년 1022억원으로, 생산실적이 10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07년 1405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203억원, 지난해 1294억원으로 생산실적이 다소 떨어졌다. 입주업체 수는 2000년 42곳에서 2004년 66곳, 2005~2007년 64곳으로 정체를 보이다가 2008년 77곳으로 늘었다. 종업원 수는 2000년 3738명에서 2004년 4258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 지난해 4077명으로 5년 사이에 18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대불산단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불산단과 대불외국인단지의 지난해 말 업체 수는 304개사로 10년전(103개사)보다 201개사(295%)가 증가했다. 지난 2000년 325억원이던 생산실적도 지난해 말 1257억원으로 386% 껑충 뛰었다. 근로자 수도 1534명에서 1만725명으로 9191명이 늘어 69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광주 첨단산단 '뒷걸음질'=광주 첨단산단은 입주업체와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몸집은 커졌지만, 생산실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내실은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단 업체 수는 지난 2000년 86개사에서 지난해 말 464개사로 5배 이상(539%) 급증했다. 고용인원도 3935명에서 8394명으로 2배 이상(213%) 늘었다. 그러나 생산실적은 2080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되레 66.1%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06년 4773억원을 정점으로 2007년 1054억원, 2008년 923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375억원을 기록,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평동외국인산단은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입주업체도 2000년 21곳에서 지난해 말 62곳으로 늘었고, 생산액도 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65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근로자도 10년전 28명 일했지만 지난해말 2195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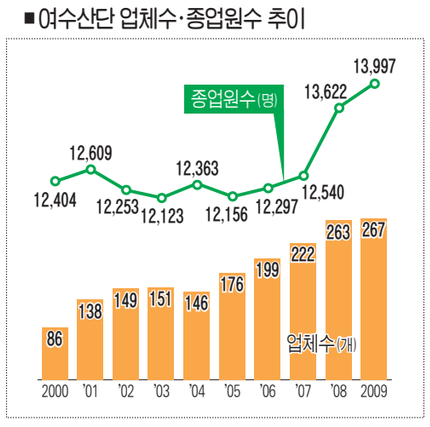
◇하남산단 생산액 2.6배 껑충=광주경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산단은 생산실적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00년 761개 업체가 4조1977억원을 생산하던 하남산단은 10년 사이에 166%가 신장해 11조1683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고용인원은 2만1902명에서 2만7249명으로 5347명(24.4%)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남산단은 1998년 외환 위기로 주춤하다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2년 5조원대를 돌파해 2004년 6조원, 2005년 8조원, 2007년 9조원, 2008년 10조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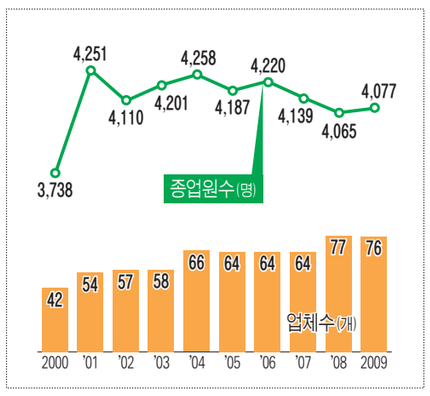
하지만 고용인원은 2005년 2만6447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해 2006년 2만4365명, 2007년 2만4221명까지 내려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고용도 점차 살아나 지난해 2만7249명으로 점차 회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산단 업체수·종업원수 추이



■광양산단 업체수·종업원수 추이



교육감 선거 '혼탁 정치판' 따라가나

정보 왜곡·인신공격 네거티브 전략 난무

"교육계라도…" 유권자들 정책대결 주문

사상 처음 주민의 손으로 뽑는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깎아내리기 등이 난무하면서 가뜩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의 특성을 감안해 정당공천 배제 등 정치권 개입을 차단한 만큼 기존 정치인을 그대로 답습하는 진흙탕 싸움을 자제하고, 정책대결로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전남 교육계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감 A예비후보측은 광주교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집단으로 발송했다. 유력후보인 현 교육감을 겨냥한 이 이메일에는 광주시교육청의 9대 문제점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하기도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왜곡된 내용이 많은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B씨도 상대 후보의 약점만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실체도 드러나지 않는 교육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광주교육'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정 예비후보를 겨냥해 인격모독적 발언을 쏟아내고, 교과부 등이 발표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해 전남교육을 헐뜯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선거공약도 제대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펼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일반 유권자는 물론 지역 교육계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모두들 교육발전을 위해 출마했다고 하면서도 선진화된 정책 발표보다는 상대를 헐뜯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면서 "교육자 출신들이 구세대 정치인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모방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 한 고교 교장도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으면 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왜 무관심 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강운태(앞줄 왼쪽 3번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조 중심의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시의원 후보 등이 함께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선과정 앙금 털고 선거승리 하나되자"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본격 행보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4일 "경선과정의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통합과 화합으로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후보 확정 이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으로 광주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은 반성과 사죄를 드린다"며 "무엇보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 됨을 위해 이용섭·정동채·양형일·전갑길 네 분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해 민주당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번 6·2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우리의 공동체, 광주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광주를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이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오만, 독선을 심판하는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용섭·정동채 경선 후보와 만나 그동안의 경선과정 앙금을 모두 씻어내기로 완전 합의했다"며 "두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철회하고 중앙당 선관위도 검찰 수사의뢰를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유태명·최영호·송광운·민형배 등 민주당 각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강 후보는 오는 7일 당무위원회의 후보 확정 뒤 의원직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통합선거대책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 경선방해 수사의뢰 취소 요청

민주당, 광주지검에

민주당이 지난 달 광주시장 후보 경선 당시 실시된 모 언론사의 ARS 여론조사에 대해 경선 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요청한 수사 의뢰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도 지난 3일과 4일 남부지법에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주지검에 의뢰한 바 있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해 수사 의뢰와 관련, 이를 취하해 달라는 공문을 5일 전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중앙당 선관위와 재심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지난 달 광주지검에 요청한 수사 의뢰를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키로 했다"며 "5일 중앙당 당직자가 직접 광주지검을 방문하거나 경우에 따라 광주시당에서 공문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은 각기 지난 3일과 4일 남부지법에 제기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 남부지법도 조만간 이 건을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